

'화순 군민의 날' 행사 개최

줌 통해 기념식 중계...군민의 상, 안병욱·한한국 구충곤 군수 "일상과 경제회복에 최선 다할 것"



13일 군민 화합과 단결을 위한 화순군 '제40회 군민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오전 화순군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념식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 행사장에는 구충곤 화순군수, 최기찬 화순군의회 의장과 의원,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최소 인

원만 참석했다. 군민들은 줌(ZOOM)을 통해 기념식에 참여했고 화순군 공식 유튜브(채널명 화순군청)로 생중계됐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기념식을 준비하며 민선 6, 7기에 '명품 화순 행복한 화순' 실현, '화순 사는 자부심'을 드려줬다고 약속한 일들을 되짚어 봤다"며 "코로나19 극복, 일상

과 지역 경제 회복, '화순 사는 자부심'의 격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 군수는 ▲예산 7천억 원 시대 개막 ▲전남 최초 아동·여성·고령 3대 친화도시 인증 ▲농민수당 지급, 밥 편한 100원 택시, 1000원 버스 운행 ▲백신·바이오 산업 기반 확충 등 성과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에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념식에서는 화순의 100년과 현재, K-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화순의 발전상을 담은 영상을 통해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화순 군민의 상'은 지역사회 발전부문에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안병욱 前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교육·문화·체육부문에 세계평화작가로 알려진 한한국 세계평화사랑연맹 이사장이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군민의 날 행사를 열지 못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 회복을 하자는 의미에서 비대면으로 기념식을 열었다.

화순=박순철 기자

장성 황룡강 100만 송이 해바라기...가을 하늘 아래 '활짝'

황룡강 상류 장안교~연꽃정원 인근... 1만 3200여㎡ 규모

가을 황룡강의 풍경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꽃 해바라기가 10월 들어 본격 개화 시기를 맞이했다. 해바라기를 볼 수 있는 곳은 황룡강 상류 지점 황미르랜드 방면이다. 장안교~연꽃정원 일원에 약 1만 3200㎡ 규모로 해바라기 정원이 조성되어, 100만 송이가 넘는 가을 해바라기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장성군은 해바라기 정원 조성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종자 파종과 육묘, 식재 작업을 진행했다. 식재된 품종은 썬리지 오렌지, 피어있는

시기가 길고 줄기가 튼튼한 최고 품질의 해바라기다. 9월 말부터 하나둘씩 꽃잎이 열리기 시작해 10월 초순 무렵 황룡강 일원을 황금빛으로 단박 물들었다. 해바라기 정원을 찾은 정모 씨(담양)는 "매년 가을마다 황룡강 해바라기를 보러 오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더 노란빛이 선명하고 진한 느낌"이라면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자주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바라기 정원을 들렀다면 인근의 연꽃정원과 은랜나무 수국길도



함께 둘러보는 것이 좋다. 황룡강 일원에 피어있는 10억 송이 가을꽃과 테마정원 '빈센트의 오화원'도 빼놓을 수 없는 감상 코스다. 특히 최근 정식으로 개장된 '엘로우시티 스타디움'의 야경은 강변 풍경과 어우러져 매우 인상적인 감흥을 남긴다.
기동취재본부

달리는 국민신문고, 담양 전통시장 찾아 주민 고충 듣는다

국민권익위, 내일 창평시장서 고충 상담·비대면 민원 신청



담양군은 오는 15일 창평시장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대형 상담버스를 활용해 전국의 시골장터 및 다중

이용시설을 찾아가 시장상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고충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창평시장 주차장에서 진행되는 국

민신문고에서는 신속 정확한 민원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기관이 협업체 상담을 진행한 다. 또한 소외되기 쉬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민원 신청 방법과 온라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신문고'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고충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충을 겪고 있는 시장상인 및 지역주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구례군, 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통해 발전방향 모색

관내 162개 사회단체 대상 순차적 간담회 추진



구례군이 사회단체의 의견을 듣고 구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단체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순호 군수는 12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개최 등 구례 발전을 위한 현안업무 추진을 지시했다.

구례군은 관내 162개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회당 20~30명 내외로 간담회를 추진한다.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며 이번 주 수요일인 10월 13일에는 여성단체협의회 등 6개 단체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다. 군은 군정 추진상황을 각 사회단체

에게 설명하고 군정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군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군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군민을 위한 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간담회 개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고, "간담회 중 나온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빈틈없는 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준비에 이어 구례 감 직거래장터 운영과 인구 소멸 지역대응을 위한 사업, 탄소중립 관련 사업 등 2022년 공모사업 준비 철저 등 군정발전을 위한 꼼꼼한 현안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군,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 본격 추진

곡성군이 사업부지 29만 7천㎡에 대한 보상 절차를 모두 마치고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섬진강 기차마을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기차마을 인근에 위치한 근린공원인 총의공원 내에 동화적인 콘텐츠 도입한 정원을 만들어 일대를 관광 볼거리

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부지에 지역민들의 쉼터 공간도 조성해 주민들도 자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곡성군은 동화정원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전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얼마 전 섬진강 동화정원 기반시설 사업을 발주했다. 기반시설인 도로 사업은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할 예정

이다. 곡성군은 본격적인 시설 공사를 하기 전 먼저 총의공원 일원을 다양한 색과 향기로 가득한 꽃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꽃단지 조성 외에도 포토존 등을 설치해 총의공원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동화정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다양한 볼거리와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방콕탈출 #힐링타임
#안전한영화관람

함평 자동차극장

- GRAND OPEN -

1관 19:20~ 21:45~
2관 19:00~ 21:30~

**코로나19 걱정없이
매일저녁2회상영**

※ 매주 월요일 휴관

함평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 내

예매 www.hpcc.co.kr 문의 061)320-2225